쓰네마사 신사

다카미쿠라 산기슭에 있으며 인적 드문 곳에 있는 이 신사는 헤이안, 가마쿠라, 무로마치 시대(794~1573)에 일본을 지배한 강력한 4 대 가문 중 하나인 다이라 가문(헤이케라고도 불림)과 인연이 있습니다.

다이라 가문에서도 중요한 인물은, 일본 최초로 무사 중심의 행정 정부를 수립한 무사들의 수장인 다이라노 기요모리(1118~1181)입니다.

기요모리의 조카인 다이라노 쓰네마사(생년 미상)는 헤이안 시대(754~1185) 중기의 공가(公家, 조정에 출사한 사람)이자 유명한 비파 연주자였습니다. 전투에서 패배한 후 이곳으로 도망쳐, 이 신사에 모셔진 것으로 추정된다.